
3.8 여성 무지개 시위

새로운 어울림

3.8 기획단

명지대 총여학생회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모임 끼리끼리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

저재바대여성여대 (WAW)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화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두레방

교수성폭력뿌리뽑기 연대회의

연세대 학교 총여학생회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지금 당신의 이메일을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일상을 검열하는 테러 방지법 반대!!

지금 이순간에도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 연대(Women Against War)는 2001년 9월 20일 평화를 원하는 여성주의자들의 모임을 통해 발족하였습니다. 'WAW'는 여성단체와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 여성언론,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새로운 여성 연대체'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들의 전쟁 반대 목소리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주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ww.kwaw.org/ www.freechal.com/kwaw

엘비시티

여성을 희생시키는 전쟁반대

소수자를 억압하는 폭력반대

전쟁을 위해 쓰는 시간과 돈을 세계 인권과 평화를 위해 사용하라
레즈비언이 꿈꾸는 대안적인 삶의 모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가 꿈꾸는 도시를 만든다. 레즈비언의 도시, 내가 꿈꾸는 도시, LBcity
www.Lbcity.com

이화여성위원회

여성공간에 대한 폭력 근절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마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마초(macho)는 흔히 강한 남성의 이미지와 성적인 능력이 뛰어난 남성을 일컫는 말이지만, 이를 넘어서 사회에서 기대되는 남성에게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를 의미한다. 마초 문화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제에 기반한 권위주의적인 남성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이들이 여성에게 언어적, 물리적인 가시적, 비가시적인 폭력과 여성 배제의 폭력을 가한다. 마초문화는 한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남자일 수도 있고, 여성 자신들일 수도 있다-에게 내면화되어 있으며, 이는 없어져야 한다.

명지대

총여학생회

반성폭력, 선언을 넘어 투쟁으로!

성폭력은 성별 권력의 문제에서 기인한 사회적 범죄이다. 우리는 이러한 차별적으로 권력화한 모든 권위에 저항할 것이며, 그것은 곧 대학내 권위주의에 대한 투쟁이 될 것이다.

니아파

획일화를 다양함으로!

니아가는 97년 잡지로 출발, 웹진을 거쳐, 현재는 커뮤니티입니다. 니아가는 이반들의 생활이야기를 담기위해, 최근 인터넷신문을 창간하여 여성이반을 위한 보다 많은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http://www.niagga.com/niagga@niagga.com>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 다름이 경계가 되지 않는 세상을 !

버디친구닷컴은 한국 최초의 동성애 전문지인 <buddy>가 만든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갈증을 인터넷을 통해 해소하는 장으로 쓰이길 바라며 만든 공간입니다. 이성애자는 동성애자를 더 잘 이해하고, 동성애자는 자신에게 당당함과 희망을 찾아가는 곳, 그래서 누구에게나 더 넓은 세상으로 눈 뜨는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꼭 한번 들리세요. [http:// buddy79.com](http://buddy79.com)

버디친구닷컴

장애여성들은 억압과 소외가 없는 세상에서 평등하게 살기를 원한다.

장애여성은 장애 있는 몸과 여성이라는 몸을 가졌음으로 여성에게 주어지는 가부장적인 억압과 폭력. 장애인에 대한 소외와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를 가지게 된 여성은 어려서부터 교육의 대열에서 제외 되고, 성장해서는 장애인이라는 차별로 노동현장에 접근조차 되지 않아 가족들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자기 삶의 주체자로 살지 못하게 된다. 장애여성도 자기 삶의 주체자로 억압과 소외를 거부하며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바란다.

장애여성공감

낭만적 이성애 강요하는 교육 이데올로기 철폐하라!!

당신은 왕자가 등장하지 않는 백설공주를 상상할 수 있는가? 잠자는 숲 속의 미녀에게 키스하는 사람이 왕자가 아닌 공주라면? 그야말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는 이러한 낭만적 이성애를 강요당하며, 교육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도구로써 작용된다. 이는 이성애가 '낭만'이라는 포장 속에서 그 본질을 감추고 있지만,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폭력에 의한 강요라는 증거에 다름 아닌 것이다.

**베타소녀
하늘을 날다**

성적소수자 차별철폐! 강압적 이성애주의 철폐!

억압적 가부장제 타파!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또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성적소수자 여성들은 일상적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강압적 이성애주의와 억압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반대하여 여성성적소수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차별과 억압, 편견과 폭력에 저항할 것이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파리미리**

미군이 이 땅에 들어온 지 50여년. 미국정부의 요구와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장려로 조성된 기지촌에서 오랜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소외된 삶을 살아온 여성들이 있다. 허나 기지촌 여성들이 처한 폭압적 상황이 그네들만의 것이던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인 우리들의 처지도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강압적인 규정과 왜곡된 시선에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말해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감지해낼 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말해야만 한다.

두레방

여성의 언어로 여성의 몸을 이야기하자

여성문화기획 불턱은 3회의 월경 페스티벌을 주최하여 여성의 월경과 몸을 여성의 언어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가부장제에 의해 아기담는 그릇, 성적대상, 저급한 육체 등으로 의미화되어온 여성의 몸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즐거운 문화기획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기획
불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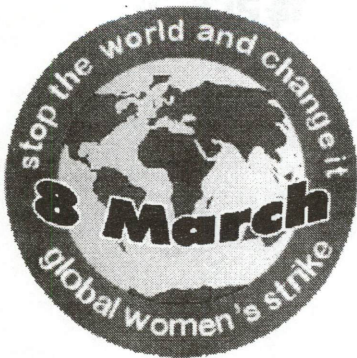
3. 8 여성 무지개 시위 공동 선언서

2002년 3월 현재, 우리는 폭력과 차별의 일상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과 또다른 학전 움직임을 시작으로, 미대통령 부시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함에 따라, 각국은 나침의 '전쟁준비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4조 3천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전투기 구매 사업부터, 이제 가상의 테러집단이라는 적을 상정하며 국민들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눈을 감는 테러방지법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현실을 어둡기만 합니다.

모든 여성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만, 법과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환이나 변태성욕자로 매도하는 방송매체와 저작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현실, 장애인 이동권이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비극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장애 여성, 성적 소수자 여성,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200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의 저항정신을 되새기며, 우리는 이제 차이로 빛나는 연대를 실현하려 합니다. 일곱 가지 색깔이 선명한 무지개는 우리의 다양성의 상징입니다. 그 다양성을 억눌러 왔던 어두움을 걷어 내고 빛을 비추는 적극적인 저항, 그것이 우리가 이 곳에 모인 까닭입니다. 『색다른 어울림』의 무지개를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사회, 소수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에서, 차별은 발붙일 자리가 없다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2002년 3월 9일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지하라!

여성공간에 대한 폭력 근절!

소수자를 억압하는 폭력반대!

마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반성폭력, 선언을 넘어 투쟁으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다름이 경계가 되지 않는 세상을!

장애여성들은 억압과 소외가 없는 세상에서 평등하게 살기를 원한다.

획일화를 다양함으로!

남만적 이성애 강요하는 교육 이데올로기 철폐하라!

성적소수자 차별철폐!

강압적 이성애주의 철폐!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를!